

기고

올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김광선 함평소방서장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설이 성큼 다가왔다.

코로나 대유행이 끝난 지금 설 연휴를 맞아 고향집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소방청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주택 화재 비율은 연평균 약 18%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약 42%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다. 이러한 통계자료로 보았을 때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기초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복잡한 장치나 추가 연결 없이 내장된 감지센서와 음향장치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화재 시 음향장치로 화재 사실을 바로 알리는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이다.

이에 함평소방서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대형 전광판, 인스타그램 등 SNS 등을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설치도 간편하지만 화재 초기 피해 저감 효과는 굉장히 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번 설에 우리 고향집 안전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물해 보는걸 추천한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고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신고 383-0019



설 명절과 뿌리를 찾는 효 교육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족 대명절인 갑진(甲辰)년 설날을 앞두고 있다. 올해도 설날을 전후해서 4일간 쉬는 날로 되어 있다.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해마다 우리의 전통적인 설 명절과 추석 한가위는 명절날을 전후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오는 민족 대이동이 생기고 있다. 설날은 음력으로 일 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이 없는 후손은 없다. 조상 대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효 문화는 일제의 만행으로 설날을 없애려 했지만 없어지지 않고 설날이 조상숭배의 날로 자리를 잡아가며 이어져 왔으며 정부에서는 이종과세의 폐단이라 하여 한 때 설날을 없애려 했으나 결국은 민의를 받아들여 설날을 휴일로 정하였다.

설날은 우리의 전통 민속 문화를 재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조상에 대한 뿌리를 찾아보는 효 교육일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설날은 우리 민족의 전통명절이면서 즐거운 날이다. 마을마다 전통적인 민속놀이가 있고 고향을 찾아온 일가친척들이 모여 즐기는 날이 설날이며 설날 아침에는 조상님께 정성껏 차례를 올린다. 고향을 찾고 조상에 차례를 올리는 것은 효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은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고향에 가기 전에 고향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조상과 일가친척에 대한 교육도 만남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핵가족 시대가 되고 아파트 주거환경이 되면서 이웃을 모르고 사는 것과 고향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대가족제도에서 조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조부모에게 하는 효도를 자녀들이 배우게 되지만, 핵가족 사회에서는 대부분 가정이 조부모가 안 계신 가정이 많으며 자녀들이 어른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설날에 조상에 대한 뿌리를 찾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

고향과 성묘를 하기 전에 해야 할 교육이 있다. 그것은 족보에 대한 교육

이다. 나는 누구인가의 교육이다. 일가친척 사람들의 이름과 사는 곳을 알아보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 이었는 가를 족보를 통해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적당한 시기와 장소와 자료가 필요하다.

효 교육을 하기에 가장 여건이 좋은 때가 설날 전후이고 장소는 고향을 찾아가는 길도 되지만 고향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뿌리를 찾는 효 교육이다. 효 교육은 모두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고 집안을 위하는 중차대한 교육이 효 교육이다.

명절 때 음식을 장만하면서도 조상의 차례상에 올리려고 정성 들여 장만하는데, 음식 장만을 하는 그 정성 자체가 효의 정신이다. 기독교문화에서 차례상 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효의 교육적 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차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례상을 차리는 효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일차적인 접근은 음식문화이다. 조상과 접근하기 위해 정성 들여 음식을 마련하고 그 음식을 모인 일가친척들이 같이 먹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으며 즐겨야 하는 것인가? 효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학교 교육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효 교육의 최적 시기와 장소가 명절 때 조상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설 명절은 나의 고향을 찾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 조상에 대한 고마움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 교육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일가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날이 설 명절이다. 설날은 어른들이 후손에게 새해에 대해 덕담하고 세배를 하는데 존경과 사랑의 대화이다.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뿌리를 알아보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려는 효심을 갖게 하는 명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집의 전통 기풍인 효 문화는 내가 전수하고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스런 뿌리 찾기 효 문화교육을 가정에서 설 명절날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칼럼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종합적인 안전 조치로 효과적으로 축사화재를 예방하자

기고

김애림 담양소방서 소방사



특히, 축사 주변의 건조물은 화재 발생 시 빠르게 퍼지기 쉽다.

세번째, 축사 내에는 화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축사 내 각 구역에 소화기를 적절히 배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시킨다. 마지막으로, 훈련은 축사화재 예방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축사화재는 가축과 축산시설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축사화재 269건 중 115건(42.9%)이 겨울철에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는 379억 원에 달한다. 축사 화재는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재난이다. 하지만 관리자들과 화재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축사화재 예방은 안전 조치 및 주의가 필요한 중요한 주제이다. 축사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점검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전기 안전은 핵심이다. 축사 내의 전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전기장치를 최소화해야 한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자기기를 꺼두어 과열을 방지하고, 고장 시 즉시 수리 또는 교체가 중요하다.

두 번째, 가연물 관리 또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축사 내부와 주변의 건조물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타기 쉬운 빛깔 등 가연성 물질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축사 화재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축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재난이다. 종합적으로,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안전, 가연물 관리, 화재 경보 시스템의 유지, 대피 계획, 화재 대응 교육과 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축산 농가와 소방본부가 함께 노력하여 축사 화재 예방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